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갤럭시 A 시리즈 중심 점유율 확대

3분기 세계 출하량 2억5470만대
전분기比 20%↓… 시장 전반 위축
中 주요 업체 두 자릿수 출하량 감소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대화면과 AI 사용 경험, 대용량 배터리 등 일상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갤럭시 A18 LTE'를 국내 출시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도 갤럭시 A 시리즈를 앞세워 세계 출하량 1위를 지켰다. 중국 주요 업체들이 두 자릿수 출하량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낙폭을 줄이며 점유율을 높였다.

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억5470만대로, 3분기 기준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5% 감소한 5780만대, 점유율 약 22.7%로 1위를 유지했다.

옴디아는 메모리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 속에서 갤럭시 A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Z8 시리즈도 보상 판매 등에 힘입어 프리미엄 시장 입지 강화에 기여했다.

애플은 전년 동기와 같은 565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22.2%로 2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와의 출하량 격차는 130만대였다. 아이폰 17 수요와 가격 인상을 앞둔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가 출하량을 뒷받침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3위 샤오미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3070만대에 그쳤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도 각각 20%, 28% 줄었다.

오포(리얼미·원플러스)는 39% 줄어든 2340만대로 4위, 비보는 33% 감소한 1930만대로 5위를 기록했다. 두 업체 역시 가격을 올리는 한편 유통 재고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옴디아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교체 수요가 위축되고, 유통업체도 매입 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재고 확보에 신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진은 신흥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아프리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으며,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중남미에서도 20% 넘게 감소했다.

반면 북미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시장 구조와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보상 판매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이처럼 시장별 수요가 엇갈리면서 제조사들도 수익성이 높은 시장과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보급형 제품이 주력인 업체들은 메모리 용량을 조정하고 출시 모델 수를 줄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옴디아는 추가 가격 인상과 할인 여력 축소로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 감소하고, 내년에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제조사들은 운영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장덕현 "MLCC 등 주력사업 성장기회 선점"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기 창립 53주년 기념식

장 사장, AI 기반 업무방식 전환 등 주문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2일 수원 사업장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기

"현재 AI 산업은 이제 '1월 1일'에 불과하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2일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패키지기판 등 주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선점하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장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세종·부산 등 국내외 전 사업장 임직원들도 사내 방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장 사장은 기념사에서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확장에 따라핵심 부품의 수요와 기술적 난도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MLCC와 패키지기판 등 우리의 주력 사업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대형 성장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기는 글로벌 파트너십,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검증된 생산능력을 모두 갖춘 만큼 이제 핵심은 '실행(Execution)'"이라며 "개발, 생산, 품질, 안전환경 등 전 영역에서 실행력을 발휘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 내자"고 당부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방식의 전환도 주문했다. 장 사장은 "AI 기술은 인간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전문화된 AI 에이전트(Agent)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해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본질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임직원 시상식과 최고경영자(CEO)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장기근속상과 함께 임직원의 AI 역량 강화 및 업무 혁신을 위해 개최한 '사내 AI 해커톤' 우수팀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국GM, PHEV 중심 친환경 시장 공략

엘렉트라 E7 전면 배치… 기술 차별화



뷰익 '엘렉트라 E7'. /한국GM

한국GM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전기 주행 효율과 장거리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앞세워 국내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배터리 용량과 전기 주행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경쟁 PHEV보다 빠른 급속충전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최근 서울 종로 S타워에서 'GM 테크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글로벌 전동화 전략과 PHEV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둔 뷰익 엘렉트라 E7이다.

엘렉트라 E7은 1.5ℓ 자연흡기 엔진과 165㎾ 전기모터, 최대 31.7㎾h 배터리를 결합했다. 배터리 전력만으로 복합 기준 최대 126㎞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엔진과 모터를 함께 활용하면 통합 주행거리는 1000㎞를 웃돈다. 특히 일상적인 출퇴근과 도심 이동은 전기차처럼 모터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거리 주행에서는 엔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GM은 전동화 전략에서 PHEV를 일회성 제품이 아닌 주요 포트폴리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GM의 국내 연구개발 조직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김영민 부장은 "PHEV는 GM의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북미를 포함한 모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동화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구자균 "AI 전력수요, 확실한 해법은 직류"

〈LS일렉트릭 회장〉

국제배전협의회 워크숍

차세대 지능형 DC 전력망 비전 발표
"글로벌 산업 성장 견인 플랫폼 도약"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2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6 국제배전협의회(CIRED)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폭발하는 인공지능(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확실한 해법은 직류(DC)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2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6 국제배전협의회(CIRED)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지능형 DC 전력망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구 회장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신뢰도 높은 전력망(Grids for AI)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력망 생태계를 완성할 핵심 키워드로는 '직류'와 '지능형 플랫폼'을 꼽았다. 구 회장은 "과거 일방향으로 전기를 전달하던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직류와 교류(AC)의 조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 고객 맞춤형 전력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력 기기에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연하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지능형 양방향 에너지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이 배전 산업의 다음 장"이라고 덧붙였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기조연설은 구자균 회장이 한국 전력 산업을 대표해 미래 전력망의 패러다임이 직류로 전환됐음을 세계 무대에 알린 것"이라며 "DC 플랫폼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배전 시장의 '룰 메이커(Rule Maker)'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시스템, '스마트 브릿지' 개발사업 수주

함정 자동화·무인화 핵심 기술 확보

한화시스템이 해군의 병력난을 풀 해법으로 꼽히는 '2인 조종 전투함' 기술 개발에 뛰어든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콕핏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브릿지 운용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콕핏형 통합함교체계의 하드웨어인 콘솔 제작부터 소프트웨어인 통합 운용 프로그램 개발까지 모두 한화시스템이 담당한다.

콕핏형 IBS에는 IBS와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 무인체계(UMS)가 단일 체계로 탑재된다. IBS는 선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CMS는 센서와 무장을 통합해 전투 지휘와 교전을 수행한다. ECS는 추진·전력·손상통제 계통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하며 UMS는 자율운항과 자율충돌회피를 구현한다. 네 기술 모두 한화시스템의 자체 기술이 적용된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이번 수주로 함정 자동화와 무인화의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며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전략 아래 미래 무인함정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 라인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현대차, 인증중고차 정보제공 범위 확대

공식 센터 점검이력·배터리 상태 공개

현대자동차가 제조사 고유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중고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현대인증중고차의 차량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전 차주가 정보 활용에 동의한 차량에 한해 안전운전점수와 공식 서비스망 점검 이력을 공개한다. 안전운전점수는 최근 90일 이내 1000㎞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가속·급감속·급출발·심야 주행 횟수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블루핸즈와 하이테크센터 등 공식 서비스망에서 진행한 블루안심점검 이력과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부동액 등 주요 소모품 교체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증중고차는 판매 전 주요 소모품을 전량 교체해 상품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정보도 강화한다. 기존 고전압 배터리 상태(SOH)에 더해 셀 전압 편차와 배터리 온도 편차, 누적 충·방전 기록을 전기차 전용 점검리포트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